

종전선언 후 한반도 체제 선택:
기독교 학교 운동의 필요성

배 휘 늘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배휘늘의 두드림’(주빌리 뉴스레터) 담당)

서 론

김정은 시대 들어서 핵개발로 전쟁의 흑암이 드리우던 한반도는 극적인 반전을 통해 통일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아무도 예측 할 수 없었던 종전선언의 기대가 이제 현실로 다가온 한반도의 두 나라는 유례없이 닥칠 새로운 해빙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사회 전반에서 해법을 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 한 가운데 통일 시대 인재 양성이라는 다음세대 교육의 난제가 자리 잡고 있다.

통일 논의는 사실 분단 시점부터 지속되어 온 민족적 과제이기에 수많은 전문가들의 해법제시가 있었지만 그중 ‘민족통합’에서 ‘국가통합’ 이후 ‘체제통합’으로 진행된다고 정리한 주정연의 “통일한국의 행정통합방안에 관한 연구”¹⁾가 관심을 끌었다. 현 정부가 장담하는 것처럼 연내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한국도 천안함 피격사태로 발발한 5.24조치를 해제하면서 남북 교류의 장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논문에 따르면 민족 통합은 “국가 통합은 아니고 국경은 있지만 상호 왕래하고 민족 공동생활권이 형성되는 단계”로서 “신뢰구축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다.²⁾ 동서독의 경우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후 양국이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를 하면서 “전쟁의 위협을 배제하고 최소한의 공동생활권을 형성”한 예를 들 수 있다.³⁾ 국가통합은 “두 체제가 지리적,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하나의 정부, 하나의 법 체제를 이룬 상태”를 의미하며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붕괴되면서 구동독 지역이 신연방주의 형식으로 서독에 편재’된 것과 “1990년 5월 22일 북예멘과 남예멘 정치지도자들의 합의에 의한 예멘통일”, “1975년 한 체제가 무력으로 다른 체제를 흡수”한 베트남 통일을 그 예로 들 수 있다.⁴⁾ 앞 서 예를 든 세 나라와는 달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무력 통일이나 흡수통일이 불가능한 상태다.⁵⁾ 따라서, “국가통합을 마친 후 민족의 내적통합을 이끌기 위한” “체제통합”의 단계⁶⁾로 나가야 하며 이는 “범국민적 합의 도출”⁷⁾

1) 위 논문은 2002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수 국내교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2) 주정연, “통일한국의 행정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2002, p8.

3) Ibid., p8.

4) Ibid., p9.

5) 나필열, 『통일은 오고 있는가』, 서울: 미래의창, 2015, p137.

6) 주정연, “통일한국의 행정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2002, p10.

을 전제로 한다. 이는 빠르면 10년 내에 일어날지도 모를 한반도의 미래이다.

2014년 7월 이래로 매주 북한과 통일 한국 전망에 대한 자료들을 접하면서 향 후 한반도의 내적 통합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면, 현재 청소년들의 선택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6.25와 공산당의 만행을 알지 못하고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반 기독교적 행태에 대한 뚜렷한 자각이 없는 청소년들이 남한과 비슷한 수준처럼 보여 질향 후 변화된 북한의 겉모습만을 보고 내적 진실을 간과하는 사태가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진정한 복음적 평화통일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가시적 통일 상황만으로 통일되었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내적 동기로 기독교 학교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기독교 학교는 그야말로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교이다. 에베소서 6:4에서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밥 존스 대학교의 경영진과 교수진에 의해 만들어진 『기독교 교육』(도서출판 존스북)이라는 책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에 대해 "사람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이 모든 질문의 출발점이며, 모든 현상을 해석하는 지침서라고 말한다. "성경에 있는 것과 상충되는 어떠한 논리도 진리일 수 없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원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⁸⁾ 또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독교 학교에서는 하나님 닮기와 하나님 따르기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레위기 11:45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라는 말씀과 갈라디아서5:22~23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받기 위해서는 섬김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하고, 섬기는 도구로 갖추어야 할 기술과 훈련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인문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순전히 직업을 위한 것이든 혹은 학문하기 위한 것이든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한 준비과정인 것이다.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한데, 정신적인 훈련과 더불어 육체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몸은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계발되고 훈련되어야 한다.⁹⁾ (고전6:20)

무엇보다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빌1:10)하여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7) 나필열, 『통일은 오고 있는가』, 서울: 미래의창, 2015, p154.

8) BJUP, 『기독교 교육』, p8

9) Ibid., p10

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¹⁰⁾

오늘날 공교육 현장의 탄식은 기독 교사들의 사기를 몹시 떨어뜨리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분별이 없는 교사도 문제지만 지각이 있어도 성경적 원리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교육 현실도 공교육이 비틀거리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기 위해 여러 이슈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통일 시대를 살아갈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지는 목적을 향해 기독교 학교 운동이 일어나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 학교는 이미 여러 곳에 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대적으로 통일을 앞 둔 시점에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사상적 혼돈에 직면해 있다.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은 어디에서든 찾아 볼 수 있는 혼란 현상이 되었다. 절대가치의 쇠퇴와 상대주의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져 가고 있다. 일례로 차별은 부정적인 개념이고 차별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은 ‘평등’, ‘차별 금지’ 등으로 누구나 생각 할 수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여기서는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이유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따로 설명 하지는 않겠다. 어쨌든 이처럼 용어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이해되어지는 오늘날의 의사소통의 혼돈 속에 공교육 현장은 날로 황폐해 가고 있다. 더욱이 종전선언이라는 민족적 염원이 성취될 여건이 성숙된 시기의 도래에 기뻐하면서도 한편 남한 주도 흡수 통일이 아닌 동반자적 남북 관계에서 향후 실질적인 남북의 체제 통일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다음세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 분명한 성경적 관점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1. 사회주의 체제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사회주의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기독교적 뿌리를 만나게 된다. 사회주의의 이상은 성경적 가르침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그 본질은 근본적으로 유물론적이다.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피조물 그 자체에 모든 관심을 쏟는 사회주의는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피조물로 대치하는 죄악을 부른다. 사회주의 국가의 종교탄압은 필연적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체제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세대가 알게 해야 한다.

필자가 이처럼 체제 통일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지난 70년간 북한의 교육제도가 가르쳐 온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에 입각한 세뇌교육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유지되는 상황이기에 북한의 다음세대에게도 적용될 것을 전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TV를 통해 보여 지는 북한의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강인한 느낌을 준다.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국가 행사에 동원되기 위해 2~3개월을 매를 맞으며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고 한다.¹¹⁾ 과학 인재를 키우기 위해 창의력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교육은 스파르타식 고강도 주입식임에 틀림없다. 남북 교류가 열리고 남북이 무한 경쟁 상황으로 십여 년 간 동반 경제 성장을 이뤄가는 동안 지금의 남한 교육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남한으로부터 선진 교육 인프라를 전수받은 후 사상적으로 투철한 북한이 훨씬 가시적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통일 후 십년, 교육 분야의 정량적인 비교만으로 예측해 본다면 지금은 말도

10) Ibid.

11) 강제희, “북한 유치원 유아의 식량권 및 건강권, 보호권, 교육권 실태”, 『아동과 권리』 제14권 제4호, pp.487-507.

안 된다고 할 사회주의식 체제로의 남북 체제 통합이 국민투표를 통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악몽이 예상된다. 현재 남한의 인구가 북한 인구의 2배이지만 남북 왕래가 자유롭게 되면 실향민들이 출신지로 주민등록 할 경우 남북한 인구분포가 변화될 것으로 본다. 물론 북한의 많은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출신지와 거주지가 섞이고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섞이면서 더 이상 남한의 인구조사 혹은 여론조사가 통일전의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의 체제에 각각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이후 십년의 혼란기를 거친 후 체제 통합의 시기에 이를 때 현재 남한 주민들이 생각지 못한 예상 밖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북한은 십년 혹은 이십년을 진짜 사회주의의 색깔을 숨긴 채 체제 통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양의 가죽을 쓴 모습으로 한국 사회를 교란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일단 북한 주도로 체제 통일이 된다면 이후 어떤 양상으로 북한 독재 정권의 본색을 드러낼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를 대비해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더욱 철저한 사상교육이 필요하고 그 뿌리는 창조계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에 뿌리를 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종전 선언 후, 기독교 학교 운동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예멘을 통한 교훈: 남북한 내적 통합의 필요성을 가르쳐야 한다.

앞서 예멘이 1990년 남과 북 합의에 의해 통일을 했다고 언급했었다. 1990년 합의 통일 당시 북예멘의 인구가 남예멘보다 2.8배(남예멘 259만 명, 북예멘 7,160,981명)¹²⁾ 많았고 북쪽이 자본주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아랍 공화국이었다. 북예멘은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 남예멘과 통일 논의를 한 후, 1990년 5월26일자로 통일을 발표하고 통일선포 후 불과 30개월 과도기를 거쳐 "총선거"를 실시하였다.¹³⁾ 예멘의 합의 통일 각 단계와 비교할 때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통일 프로세스를 밟을 전망이다. 다시 예멘을 살펴보자. 통일 예멘은 북쪽에서 대통령을, 남쪽에서 부통령을 배출하였으나 권력배분에만 관심을 갖던 사회주의체제의 남예멘이 사회통합에 힘쓰지 않고 또 통일 과정에서 "남·북 예멘 조직을 물리적으로만 합병함으로써" 결국 1994년 5월 21일 남예멘이 분리 독립을 선언하면서 무력충돌이 벌어지게 되고, 무력충돌에서 북예멘이 승리하여 1994년 7월 2일 남북 예멘은 무력에 의한 재통일을 하게 된다.¹⁴⁾

국민적 합의와 사회 통합이라는 내적 통합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없이 외적인 통합만으로는 불완전한 통일임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 통일 예멘은 남과 북이 각각 군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1국가 2군대 형태였다.¹⁵⁾ 통일과 함께 신속히 동독 군대를 5만 명만을 서독 군에 편입하고 12만 명을 퇴역 및 전역시켰던 통독의 경우와 비교되는 상황이다.¹⁶⁾ 우리의 경우, 남한이 북한에 비해 인구는 2배나 되지만 국군의 수는 절반(남한 63만 명, 북한 119만 명, 2017년)¹⁷⁾인 형편이다. 이 또한 한반도의 통일은 인구가 우월한 쪽이 인구가 열세인 쪽을 흡수통일하기 힘든 성격을 띠고 있고 한편, 군사력이 센 쪽이 상대적으로 군사력 열세인 쪽을 함부로 무

12) <https://namu.wiki/w/%EB%B6%81%EC%98%88%EB%A9%98>

13) 주경연,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2002, p11

14) 최장욱, "최근 통일사례가 한반도 통일방안에 주는 함의-독일,베트남,예멘 통일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13권0호, 2018, pp.127~128.

15) Ibid., p133.

16) 박영오, "한반도 통일 시 한국군 주도 군사통합 방안," 『한국군사학논총』 제2집 제2권(2013), p222. 재인용

17) <https://www.bbc.com/korean/news-41494924>

력 침범할 수 없게 하는 구조를 가진다. 결국 남북한의 물리적 환경도 내적 통일로 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3. 북한의 교육 상황: '주체사상 깨기'가 필요하다.

북한과 남한의 교육에서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이 체제 유지를 다지기 위해 정치사상 교육을 핵심교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유아교육과정에서부터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세뇌시켜 북한 체제에 순응하는 인민을 만드는 것이 북한의 교육 현장이다.¹⁸⁾ 최민수(1996)에 의하면 "사회주의 교육사상의 원리와 주체사상적 이념을 교육강령으로 추출한 것이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이며 취학전 교육에 관한 총체적인 법은 「어린이 보양교육법」에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은 1947년 「북조선 학교교육체제에 관한 규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조치 일부 개정에 관한 결정서」를 통해 4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은 탁아 기능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여성 노동력을 극대화하면서 "유아의 사상교육"에도 주력하게 된다.

1956년 교육성은 「유치원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만3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들을 유치원에서 집단 교육을 받게 하였으며, 그 후 1959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제18호인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폐지 할 데 대하여」에 의해 전면적인 무상교육이 유치원 교육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유치원이 양적으로 팽창하게 된다. 그리고 1976년부터는 전 지역에서 취학 전 유치원 1년 과정이 의무화 된다. 탁아소와 유치원의 정치사상 교육에 '백두산 3대장군 교양실'을 만들어 사판(김일성 생가 모형)과 도록(2~3장의 사진이 편집된 게시판)이 동원되는 것이 북한 유치원 교육의 현실이다.¹⁹⁾ 인터넷 동영상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탁아소에서는 김일성 일가에 대한 노래와 율동이 주를 이루고, 김일성 부자의 어린 시절을 미화한 이야기를 통해 웃어른 존경하기,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 등의 행동을 모방하는 습관 형성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정치사상 교육은 이슬람의 마드르사에서 이뤄지는 종교교육과 유사하다. 또한 정치사상교육은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로 내용이 확대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목과 내용에서 구체화되어 어린 북한학생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파키스탄 어린이들이 5세부터 매일 집에 찾아와서 꾸란을 읽히는 교사와 함께 8세까지 음역으로만 꾸란을 일독한 후 이슬람 사원에서 성대하게 책거리 잔치를 하며, 또 유치원부터 11학년까지 '이슬라미야'라는 교과목으로 이슬람식 가치관을 형성 한 후 (이 기간까지는 꾸란을 모국어로 읽지 못하게 하고 단지 아랍어 음역으로만 읽도록 하며, 교사가 뜻을 풀이 해준다) 성인이 되면 꾸란을 모국어로 읽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되는 것과 흡사하다.

한편, 김정일은 1999년 수정된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공산주의는 삭제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토대로 정치사상교육과 아울러 지능교육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재정비 한다.²⁰⁾ 김정은이 집권한 후인 2012년부터는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한다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에서 정치사상교육은 2015년 김정은 관련 교과가 추가되었다. 의무교육이라고는 하지만 학교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무상교육이던 북한의 교육은 교육비용의 70% 정도를 학

18) 지성에 외 1명,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II-남북한 유치원교육 체제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9-1 : 1-24, 1999

19) 양옥승 외 1명, "북한의 유아교육 정책 분석", 『유아교육연구』 36권2호, 2016년 04월

20) Ibid., p116.

부모들이 부담하게 되었고,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도 열악해지고 있다. 무상교육이던 유치원의 경우도 원아의 부모들에게 식량, 현금 등을 거두어 운영하는 곳이 많아졌다 한다.²¹⁾

또한 주목할 사실은 90년대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사회 재건을 위해 교육제도 및 정책의 개선을 선택했다. 그렇지만 유치원 교사 출신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아동들이 연래 공연에 동원되고 이 공연을 위해 2~3개월씩 교사에게 아동학대에 가까운 매를 맞으며 훈련하는 현실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²²⁾

여기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잠시 살피고 넘어가고자 한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물변증법을 한 단계 넘어서서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이 사람이고, 그것을 개조하는 힘이 사람에게 있음을 밝힌 사람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이다.²³⁾ 주체사상은 사람을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로 보며, 이와 같은 사람의 본질적 특성으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들고 있다.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개체로서의 한 인간이 아닌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을 일컫는다.²⁴⁾

김정일은 “역사의 주체는 근로인민대중이며 반동적 착취계급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근로인민대중은 역사를 개척하고 발전시키지만 모든 착취계급은 결국 역사의 반동으로 혁명의 대상이며 사회는 이 투쟁을 통하여 전진하고 발전하여 왔다”²⁵⁾고 설명한다. 즉,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 쟁취를 위한 계급 투쟁적 역사관”이다. 또한 “인민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역사 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다. 혁명운동, 공산주의 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 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문제이다.”²⁶⁾ 어려서부터 이러한 주체사상을 교육받고 이 사상에 따라 수령에게 절대 복종하고 당에 충성 맹세하는 북한 인민들이 양성된다.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노선을 통한 주체사상 확립의 과정에서 북한은 상호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은 북한교육의 이념과 내용, 방법을 규제하는 것으로 교육적 기능을 당이 독점하여 당의 지시와 명분에 따라서만 정치교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²⁷⁾

이에 따라 북한의 국어교과서는 학습의 본래목표인 정서 함양이나 감정순화의 단원은 거의 제외되고 오로지 계급혁명의욕의 고취를 위한 사상교육이 아니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상화를 위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²⁸⁾ 다음 표는 북한 초·중등학교의 교육내용을 보여준다.

〈북한 초·중등학교의 교육내용 개요〉

목적	주요 교과
----	-------

21) 강재희, “북한 유치원 유아의 식량권 및 건강권, 보호권, 교육권 실태”, 『아동과 권리』 제14권 제4호, pp.487-507.

22) Ibid.

23) 『주체사상연구』, 서울: 태백, 1989, pp.177-178

24) Ibid.181

25) Ibid., p182-183

26) Ibid., p183-184

27) Ibid.

28) Ibid.

지	-혁명과 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 배양	- 일반지식: 일반기초지식교육, 기초기술교육, 예능교육 - 전문지식: 사회과학 전문지식교육, 자연과학전문지식교육, 전문기술 교육
덕	-공산주의 사상 기본 확립	-주체사상의 원리 교양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교육 -당정책 교양과 혁명전통 교육 -혁명 교양, 공산주의 교양
체	-사회주의 혁명 실현을 위한 체력 구비	-체육 교과

출처: 한만길(1997), pp.190~191

북한의 영어 교육도 주체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다. 반미를 부르짖으면서도 영어교육에 힘써 왔는데 이에 대해 '주체교육론'에서는 "외국어 교육의 목적과 역할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널리 교류하여 그들 혁명의 국제적인 연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²⁹⁾

영어 교과서의 지문으로는 「크리스마스 선물」(오 헨리), 「올리버 트위스트」, 「One out of many」, 「Eliza runs away」(「Uncle Tom's Cabin」), 「Vanka」, 등이 실렸고 자본주의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적 모순과 자본주의 사회 구호시설의 병폐, 자본주의 사회 복지제도의 구조적 결함, 자본주의의 모순, 자본주의 사회 비판,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경제제도 모순, 인종차별 자본주의 국가 미국, 미국 노예제도 비판, 반미의식, 미제국주의자는 인민의 적,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한 애국정신,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는 등의 관점을 다루고 있다.³⁰⁾

2010년 4월9일에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43조에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³¹⁾ 1975년 이후 대학에서 공과계열과 자연과학 계열에 70% 이상의 학생들을 배치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진바 있다.³²⁾ 김정은 집권 후 「인민교육」에서는 "김정은 동지께서 밝히신 중등일반교육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 때 대한 사상은 초등 및 중등교육단계에서 과학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반지식교육을 강화하고 그 질적 수준을 높일 때 대한 사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³³⁾

한편, 북한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규정하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교원의 기본적 과업으로서 1)교수사업의 책임적 완수, 2)학생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위해 교사 자신에 대한 혁명화, 3)교수교양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정치사상적 과학 이론적 자질 향상을 언급하며 이를 북한교원의 3대 기본임무이자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³⁴⁾. 북한에서 교사는 교원양성과정 입학 단계부터 출신성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된다.³⁵⁾ 교원양성교육과정은 교사 역할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 개발을 위해 정치사상 교육(580시간), 개별교과(400시간), 교수활동을

29) 김종순, 1990, p105

30) 유명근, "북한 중학교 전학년 영어교과서 지문연구:서구문화항목 중심으로", 2008

31) 차승주, 「김정은 시대 부간 교육의 변화에 관한 소고:1970년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32) Ibid.

33) 리무석, 「인민교육」, 주체101(2012)년 제4호(7~8월), 교육신문사, pp.13~14

34) 김형찬, 1990, p510

35) 한만길, 1998, p190

위한 교육학 관련 교과(720시간)의 3개 영역과 군사교육으로 구성된다.³⁶⁾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정기적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김정은 시대에 북한 교육 변화는 엘리트 교육 강화, 컴퓨터와 외국어 역량 강화를 통해 경제건설에 필요한 인재양성 주력을 그 특징으로 한다. 선대와 달리 일반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국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변화이며 사회주의 주체사상교육이든 경제 생산 능력을 높이는 엘리트 교육이든 심지어 앞으로 일반적 도덕률을 따르는 교육이 되더라도 인본주의에 입각한 무신론적 지상낙원을 추구하는 교육이라면 비성경적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기에 이러한 견고한 사상적 진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깨어져야 인류의 미래에 소망이 있음을 의심치 않는다.

4. 북한 학교교육 현황 및 교육 분야 대북 지원 현황³⁷⁾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북한역사에서 최대의 위기와 고난을 맞이하였다. 1980년 말 동구 유럽과 구소련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국제적 고립에 처하였고, 1992년부터 부각된 북한 핵 위기, 이어서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2년간 계속된 수해로 인해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과 국가경제 파탄 위기에까지 치달고 있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교육 분야의 피해 현황만 보더라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³⁸⁾ “통계에 의하면 145개 군 520만 명이 1995년 홍수 피해를 입었고 총 피해액이 150억불에 달한다. 홍수기간 동안 4,120개의 유치원과 2,290개의 초중등학교(총면적 5,240,000m²)가 유실, 파괴되거나 물에 잠겼고 수많은 교육비품이나 교과서가 못쓰게 되거나 유실되었다. 교과서의 경우만 살펴봐도, 종이 3,000톤에 해당하는 3,462,000권이 유실되거나 물에 잠겼다. 1996년에 밀어닥친 홍수로 북한은 403개의 학교(총면적 527,000m²)가 파괴되었고 총 피해액이 213,735,000달러에 달한다.”³⁹⁾ 유치원 교사 출신의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교과서를 해마다 생산해야 하는데 생산하지 못하니까 원래 있던 교과서를 계속 쓰는 거예요. 헐어 가지고 말도 아니죠. 어쨌든 제가 19년 동안 교사할 때 교과서는 한 번 밖에 안 나왔어요. 아예 주지를 앓고 그냥 공부시간에만 보게 하고 거두고, 그러니까 유치원 걸로 되어 있죠.”⁴⁰⁾

또한 고난의 행군 때 대부분의 학교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그 여파로 교권이 실추되었다 한다. 심지어 유치원에서조차 하루 한 끼의 강냉이 죽을 주는 대신 아이들을 데리고 강가에 나가서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평균 5시간 정도 재활용품을 씻는 작업을 시켰다 한다. 이 일은 겨울에도 이어졌으며 강이 얼면 인분을 한 소래씩 해오는 과제를 시켰는데, 이때 교사가 직접 인솔할 때는 아이들이 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인분을 담고 과제로 시킬 때는 엄마들이 해 주곤 했다 한다.⁴¹⁾ 이런 상황에서 교권이 세워지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대북지원 사업은 대부분 보건, 의료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 한다.⁴²⁾ 긴급 구호나 인도적 지원 사업이

36) 김병찬, 2008, p164

37) 윤중혁 외 3명, “북한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2006

3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ational Draft EFA Assessment Report」, National EFA 2000 Assessment Group, 1999.5. p.11

39) 윤중혁 외 3명, “북한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6, 재인용

40) 강재희, “북한 유치원 유아의 식량권 및 건강권, 보호권, 교육권 실태”, 『아동과 권리』 제14권 제4호, pp.487~507

41) Ibid.

아니며 남과 북이 함께 역할 분담하며 협력할 부분으로 여겨져 주과제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 분야에 대한 대북지원은 민간에서 드물게 이뤄졌다.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서 ‘조선교육기금’을 통해 고려성균관(개성시, 대학 교육기관) 청사 건설을 후원했고⁴³⁾ 2005년 12월부터는 매년 북한에 교과서용 종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⁴⁴⁾ 2006년부터 새로운 대북지원사업인 지역개발이 시도되면서 평양시 강남군의 장교리, 당곡리 2개 지역이 개방되었고, 굿네이버스는 이곳 소재 소학교, 중학교의 신축 리모델링을 요청한 상태이며⁴⁵⁾ 2003년도에 4개 학교 4,800명에게 교복과 교육 기자재, 교과서용 종이를 지원했으며, 2003년~2005년까지는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으로 교과서용 종이를 지원했다 한다.⁴⁶⁾ 이처럼 대북 지원에서 교육 분야는 지금까지 민간에 한하여 미비한 교육 재료 지원에 그쳤고 교육의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는 교류나 지원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되고 남북 교류의 물고가 트인다면 남북한 교육 분야 교류와 대북 지원은 한국 교회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분야이다. 동서독의 통일교육을 보면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데올로기적 대립 개념에서 탈피하여 독일 민족의 단일성에 대한 자각 의식을 갖게 한 것과 통일된 독일에서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한 것”이 오늘날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다.(최은수, 1996)

5. 기독교 학교 운동의 예

1) 1907년 평양

1876년 조선 정부가 문호개방을 통한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1885년부터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한다. 초기 기독교 학교의 설립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19세기 말 조선 사회의 폐쇄적 세계관과 방어적 태도로 인해 선교사들이 교육을 통한 간접적 선교 방법을 택한 것이며, 둘째는 문호를 개방한 조선 사회가 근대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근대식 서구 교육의 필요성 및 수용성이 있었다는 것과 셋째는 조선을 식민지화 해 가던 일본이 근대교육을 군국주의 이데올로기 형성의 방편으로 여길 때 기독교 학교들은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따르며 민족주의 형성의 산실이 되어 주었다.⁴⁷⁾ 당시 기독교 학교들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므로 학교 설립의 첫째 목적이 복음 전도였고 둘째가 자국민을 위한 전도자 양성이었으며 세 번째 목적이 기독교 공동체의 자녀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지도자로 양성되는 것이었으며 넷째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 인성교육이었고 끝으로 한국적인 지도자 양성이었다.⁴⁸⁾ 그래서 영어의 비중이 높지 않았고 다수의 민족지도자를 배출하는 요람이 되었다. 오늘날 미션스쿨과 기독교학교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진 형태였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기독교교육적 의미”⁴⁹⁾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교 운동의 시발점을 1907년 평양대부흥회로 보고 있다. 특히 1907년 1월 14일 말씀사경회 마지막 저녁집회는 6시간이나 지속되었고 1,000여 명이 완전한 화음이 되어 장쾌한 통회와 흐느낌의 통성기도를 드렸다는 보고가 있다.⁵⁰⁾ 박용규 교수는

42) 윤중혁 외 3명, “북한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6

43) Ibid.

44) <http://www.krhana.org/business/01>

45) 윤중혁 외 3명, “북한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6

46) <http://www.goodneighbors.kr/storycast/4852815/storyView.gn>

47)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p190

48) Ibid., pp.190-191

49) Ibid., pp.15~32

50)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p220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의 특징으로 말씀연구,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언급한다.⁵¹⁾ 이러한 한국교회의 영적 대부흥은 1907년 상반기 만에 기독교학교가 136개 늘어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⁵²⁾ 스왈른(W. L. Swallen)선교사는 당시 미국 선교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한다. “대단히 놀라운 수의 학교가 올해 설립되었습니다. …… 학교에 적합한 교사들을 공급하는 문제는 시급한 사항입니다.”⁵³⁾ 『한국기독교교회의 역사(상)』(김인수)에 따르면 1906년 6월 208개의 학교가 1907년 6월에는 344개로 늘어났으며 학생수는 1906년 3,456명에서 1907년 7,504명으로 증가했다 한다.

2) 1920년대 네덜란드⁵⁴⁾

네덜란드의 근대사에서 기독교 학교 운동은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네덜란드는 16세기 칼빈주의 신학에 기초한 개혁교회가 학교교육을 주도하였으나 18세기 중반 이후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고 19세기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립학교제도가 확립된다. 이는 학교를 교회와 종교로부터 독립시켜 국가 통제 하에 둔 것으로 학교교육의 세속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 법제화 작업을 주도한 이들은 주로 ‘공동체의유익을위한학회’에서 활동해 온, 계몽주의를 따르던 진보 성향의 기독교지도자들이었다. 공립학교에서는 근대정신에 따른 국가통합성을 목표로 애국심과 기독교적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결과 성경과 교리수업과 목사의 장학활동이 배제되었다. 명목상 기독교적 경건을 중요시 하면서도 더 이상 교리적 성격의 교육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 대신 도덕성 교육에 주된 관심이 기울여졌다. 이에 “유익”이 아닌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얀 드 리프더 목사는 ‘국민구원을위한연합’을 창립한다. 그는 복음화집회와 더불어 소년단체, 소녀단체, 여성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을 결성하였고, 공립학교 제도의 세속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종교교육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독교학교운동을 시도한다. 또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해 자선교육 기관들을 설립했으면 교회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비전으로 기독교학교운동을 전개했다.

기독교학교운동에 이어 기독교정치사회운동을 펼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1869년 이후 기독교주간신문의 편집인이 되어 칼빈주의 기독교사회운동의 여론을 조성하였고, 1878년에는 기독교 정당인 ‘반혁명당’을 결성하여 1889년에 기독교연정내각에 참여한다. 카이퍼와 ‘반혁명당’은 네덜란드의 정치, 교육, 사회문제의 법제화에 있어서 기독교적 신념을 관철시켰고, 마침내 카이퍼는 1901-1905년 네덜란드의 수상으로 일했다. 카이퍼는 1905년에 초등학교법을 개정하여 사립학교 교사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고,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증액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액되도록 만들었다.

카이퍼와 동시대의 신학자겸 목사였던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도 ‘개혁교회학교연맹활동’과 ‘반혁명당’ 의원 활동을 통해 사립학교의 입지확립을 위하여 노력했다. 그는 1919년 의회의 교육위원장으로 일했고 1920년 마침내 사립학교의 위치는 공립학교와 헌법적으로 동등한 입지를 얻었으며 동일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20년에 이와 같은

51) Ibid., p17

52) 박상진,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기독교교육적 의미”,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p25

53) W. L. Swallen, Letter to Dr. Brown, July, 25, 1907,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p429 재인용

54) 조성국, “네덜란드 기독교학교 운동의 역사가 한국 기독교학교의 과제에 주는 함의”, 『기독교교육논총』 제20집, 2009

승리의 결과를 두고 정통 칼빈주의자들은 학교투쟁을 "우리의 두번째 80년(1840-1920)전쟁"이라고 칭한다.

결 론

종전선언을 앞둔 한반도는 조선이 쇄국정책을 포기하고 문호개방이라는 결단을 하던 시기와 매우 유사한 사회적 격동기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번에는 개방을 단행하는 북한을 향해 같은 민족인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가 주도적으로 기독교학교 개척에 나설 것이다. 그 영역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어디라도 가능 할 것이다. 먼저는 한국인 다음세대, 그 다음이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의 한민족 다음세대 그리고 현지인들이 될 것이다. 어쩌면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다국인(multi-national)·다민족(multi-tribe) 학교가 될지도 모르겠다. 한국 교회가 새로운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곳곳에서 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 설립 움직임이 이제는 운동성을 가지고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1907년 평양대부흥과 기독교학교 운동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재현 가능한 기록이다. 네덜란드기독교학교 운동의 예에서 보여지 듯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과 다음세대를 가르쳐야 한다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실행할 때 제2의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대통령이 통일 한국에 일어날 것을 확신하다. 앞서 살펴본 1907년 평양과 네덜란드의 예에서 기독교학교운동이 국가복음화운동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예들이 보여 주는 또 한 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가 어우러진 영적 부흥이 견인차가 되어야만 기독교학교운동이 폭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이다.

일단 한반도가 평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핵개발을 완료한 후 이제 경제 총력전으로 들어가면서 남한과 경제적인 면에서 승부하러 하고 있다.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남한과 통일을 하기 원하는데 그 기초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행사의 카드섹션에서 보여준 것처럼 끝까지 사회주의 체제로 남쪽을 통일하겠다는 것과 아울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자세다. 문대통령은 고려 연방제를 생각하는듯 하지만 북한 김정은은 결코 연방제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체제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해 가는 길목에서 거쳐 가는 수단쯤으로 고려할는지 모른다.

서론에서 거론한 통일의 3단계에 대해 다시금 상기해 보면, 민족통합 단계와 국가통합 단계까지는 상호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경협을 위해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고 관광개발에 대한 남북한 공조가 대북제재 해제와 함께 실행될 전망이다. 이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체제를 비교하는 기회도 될 것이다. 남북 공통의 헌법 제정을 위해 남북의 당대표들이 만나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하위 법 제정을 위해서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남북한 군대의 통합과 지휘체계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여러 사안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독교학교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씀 묵상(Q.T.)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성경에서 길을 찾는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한다. 주일 하루가 아닌 평생 습관이 되도록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를 가르쳐야 한다. 지극히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독교학교운동은 강력히 일어나야 한다.

참고 사이트

음악교육 특화 유치원

<https://www.youtube.com/watch?v=PB965kCG0n4>

북한 유치원 & 고위급 자녀들 다니는 김정숙 탁아원

<https://www.youtube.com/watch?v=ABWZzNUZEcA>

신의주 본부 유치원

<https://www.youtube.com/watch?v=iy-ECagDCoY>

창광유치원

<https://www.youtube.com/watch?v=LPW6yiyZjb8>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2004년 설립)

<http://www.krhana.org/>

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kr/storycast/4852815/storyView.gn>

2018.05.01 [뉴스G] 다른 듯 비슷한 북한의 교육제도

<https://www.youtube.com/watch?v=QuNkd3QQqh0>

북한에서는 출신이 나쁘면 좋은 대학도 못 간다?!_채널A_이만갑 73회

<https://www.youtube.com/watch?v=5GDobHoZVy4>

톡톡 북한 이야기 <북한의 교육제도> 2014-03-11

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7/3428426_17999.html